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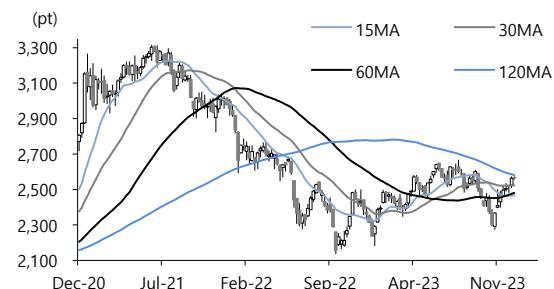


KOSPI, 단기적인 부담에 그칠 전망

1. KOSPI, 저항 도달했지만 상승 추세 유효

- KOSPI, 120일 이평선 돌파 후 상승 폭 확대하면서 60일 이평선 이격도 104.56% 도달. 과거 이격도 105% 수준은 단기 고점 형성되는 가격대였음.
- 주봉상으로는 120주 이평선 저항 도달. 2022년 하락 시에도 중요한 지지대로 작용해 강한 저항 예상.
- 다만 주간 MACD에서 매수 신호 발생. 8월 매도 신호 발행 후 낙폭 제한된 가운데 매수 신호 발생해 추세 상승 가능. 조정은 단기에 그칠 전망.

KOSPI 주봉과 MACD, 반등 과정에서 120주 이평선 저항 도달했지만 MACD 매수 신호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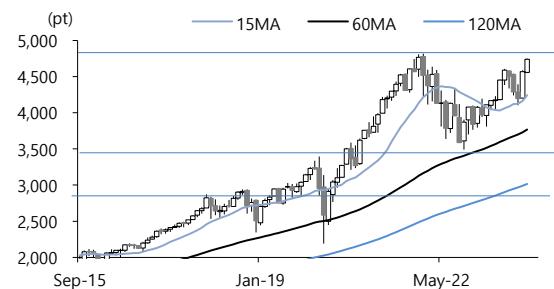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S&P500 지수의 부담과 기대

- S&P500 지수는 10월 말 이후 가격 조정 없이 상승 폭 확대. 60일 이평선 이격도 107.46% 기록. 극단적 과매수 수준.
- 2022년 초 역사적 고점까지 약 1.46% 남은 상황. 경험적으로 신고가 경신 시 공방 있어 단기 조정 가능.
- S&P500 월간 지수에서 매수 강화 신호 발생해 전고점 돌파 후 추세 상승 예상됨..

S&P500 월봉, 이전 고점대 저항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MACD에서 매수 강화 신호 발생한 점 긍정적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KOSPI, 저항 도달했지만 상승 추세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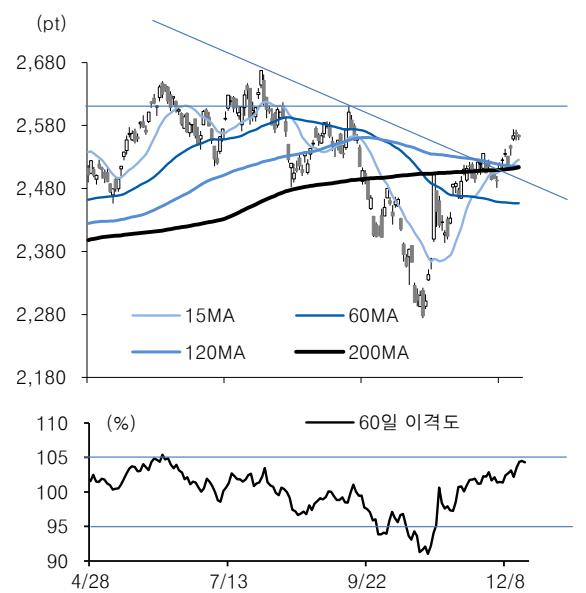
KOSPI는 지난 11월 말과 12월 초에 걸쳐 약 20 거래일 간 120일 이평선 부근에서 공방이 있었고, 12월 11일에 동 이평선 돌파 후 단기 상승세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60일 이평선 이격도는 104.56%까지 상승했다.

[차트1]에서 볼 수 있듯이 작년 10월 이후 60일 이격도 105% 수준은 단기 고점대가 형성되는 가격대였다. 2020, 2021년 상승 과정에서는 110%를 넘긴 적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주봉상 저항대를 모두 돌파한 후에 형성되는 추세 상승 과정이었다.

[차트2]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은 120주 이평선의 저항에 도달한 상황이다. 2022년 초 추세 하락 과정에서도 120주 이평선 부근에서 약 3개월 간 지지 시도를 거친 후에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어 비교적 강한 저항을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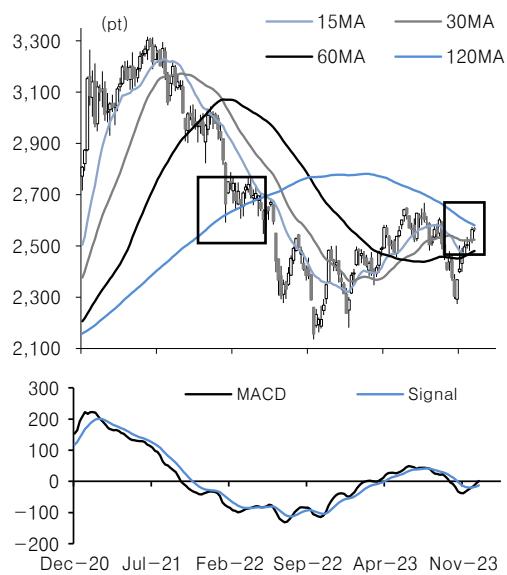
다만 KOSPI 주봉상 MACD에서 매수 신호가 11월 말에 발생해 추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초에 이 지표에서 매도 신호가 발생한 후 하락 폭이 제한된 가운데 다시 매수 신호 발생해 장기 상승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조정 가능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차트1] KOSPI일봉과 60일 이평선 이격도, 120일 이평선 돌파 후 상승 과정에서 60일 이평선 이격도 105% 근접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KOSPI 주봉과 MACD, 반등 과정에서 120주 이평선 저항 도달했지만 MACD 매수 신호 발생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S&P500 지수의 부담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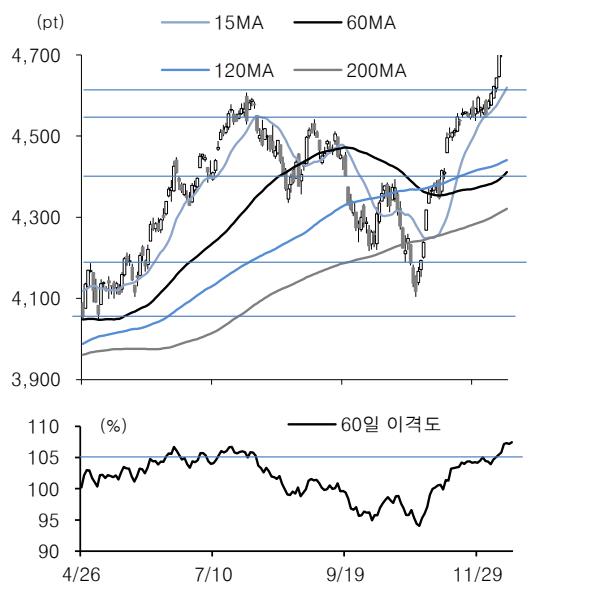
미국 S&P500 지수도 10월 말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2월 FOMC 이후에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다. 역사적 고점이 4,818pt이고 18일 종가가 4,740pt로 신고가 경신까지 78pt(1.65%) 남겨둔 상황이다.

문제는 가격 조정 없이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60일 이평선 기준 이격도가 107.46%까지 증가했다. 이는 2022년 8월 이후 최고치이고, 2020년에 발생한 것을 제외하면 최근 발생은 2011년 10월로 상당한 수준의 과매수라고 할 수 있다.

[차트3]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에 장기 조정 후 신고가 경신 시점에는 적지 않은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다만 S&P500지수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해 왔기에 결국은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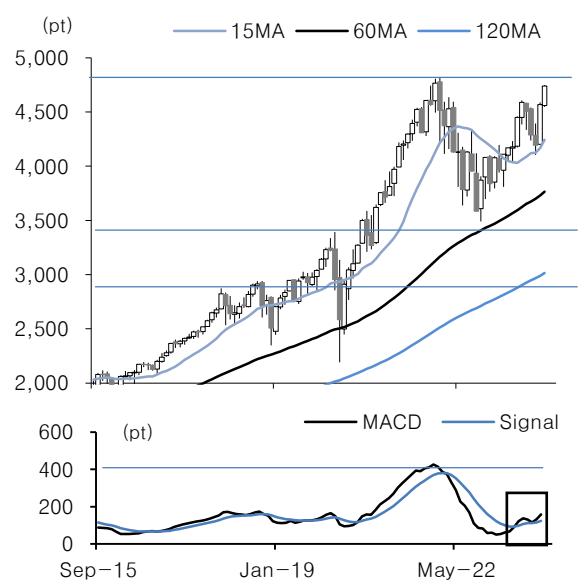
특히 [차트4]의 월간 MACD에서 MACD선이 등락 과정에서 Signal선의 지지력을 확인하는 매수 강화 신호가 발생해 전고점 돌파 후에도 중장기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 이 높다는 판단이다.

[차트3] S&P500일봉, 연중 고점 경신 중인 가운데 60일 이평선 이격도 107%대까지 상승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S&P500 월봉, 이전 고점대 저항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MACD에서 매수 강화 신호 발생한 점 긍정적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KOSPI, 상승에 우호적인 시장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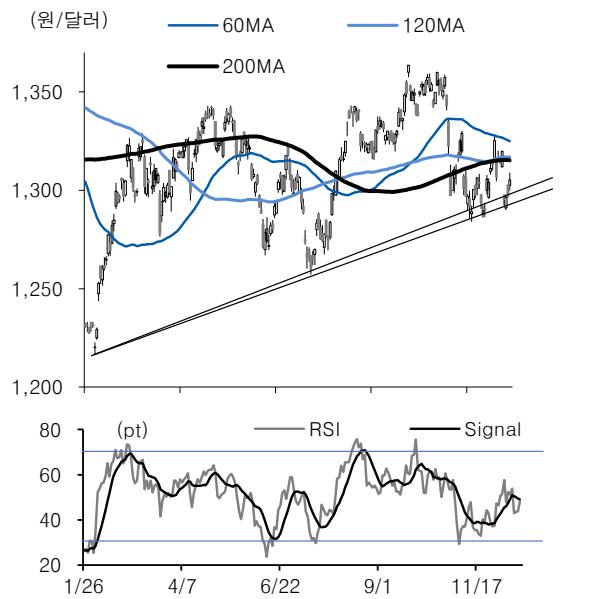
시장 주변 상황도 주식시장 상승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원달러 환율은 연초 저점에서 그은 장기 상승 추세선에서 지지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반등이 제한되고 있다. 이전과 달리 60, 120, 200일 이평선 등이 중첩된 가격대가 저항이 되고 있다.

아직은 확인 필요하지만 현재 지지되고 있는 장기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면 본격적으로 조정 폭을 확대할 수 있고, 이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신호가 될 것이다. 일단은 장기 이평선들에 대한 돌파 실패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파생 시장 관점에서 지난 12월 만기일 당시 KOSPI200 선물 미결제 약정이 289,769 계약으로 9월 만기일에 비해 감소세가 이어졌다. 만기일 미결제 약정 추세는 주가 추세와 반대로 형성되어 KOSPI200 지수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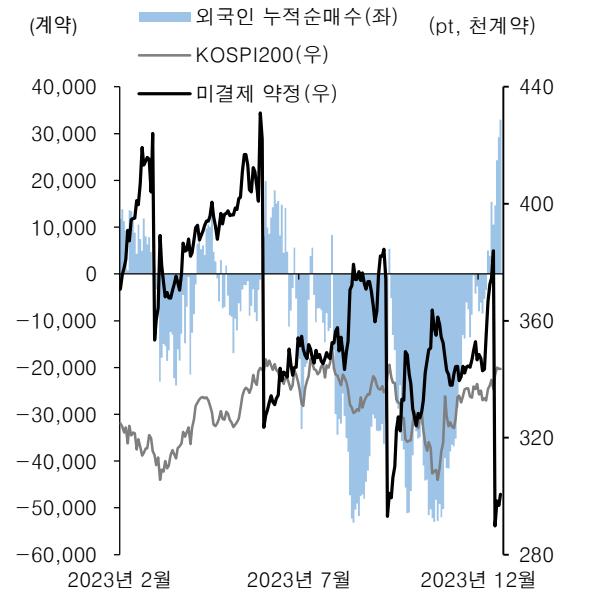
KOSPI200 선물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7~11월까지 대부분 누적 순매도 포지션 유지하고 한때는 -5만계약을 하회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순매수 3만계약을 넘어서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차트5] 원달러 환율 일봉과 RSI, 2월 저점에서 그은 상승 추세선 유효하지만 장기 이평선 저항으로 작용 중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KOSPI200 지수 가격과 선물 미결제 약정,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